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화 안내

고충 및 성희롱 상담전화 02-3270-6582

부당청구 신고전화 02-390-2008

www.nhic.or.kr



감염병 질환 예방

HAPPY
Health Lif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감염병 질환 예방할 수 있다!

감염병 질환 예방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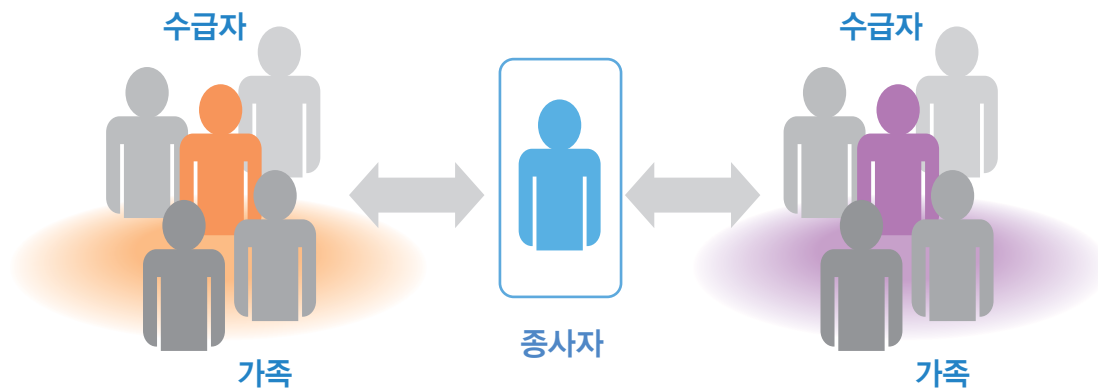
I 감염관리의 필요성	01
II 감염관리 일반지침	02
가. 손 씻기	02
나. 처치 및 관리시 주의점	04
다. 보호장구 사용	09
라. 감염성 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09
마. 세척, 소독, 세탁물, 폐기물 관리	10
III 감염질환 노출 시 조치	13
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하여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환	13
나. 그 외 노출 되었을 때 조치가 필요한 질환	13
IV 수급자 질환이나 증상에 따른 감염예방법	14
가. 질환별 주의점	14
나. 증상별 주의점	16
V 종사자 면역상태확인고 예방접종	18
가. B형 간염	18
나. A형 간염	18
다. 인플루엔자(독감)	19

I

감염관리의 필요성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 수급자는 오랜 지병과 병원입원 등으로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은 수급자와 가까이 생활을 함으로써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성 질환을 옮길 수 있습니다.
- 요양종사자는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가 있으며, 또한 여러 대상자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을 옮길 수 있어 감염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알고 잘 지켜야 합니다.



II

감염관리 일반지침

가. 손 씻기

수급자를 서비스하면서 손에 병원균이 오염되고, 오염된 손으로 준비한 약이나 음식을 통해 몸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손 씻기를 올바르게 하면 감염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손 씻기는 언제 할까요?

- 서비스를 시작할 때
- 음식이나 약을 준비하기 전
- 수급자에게 삽입된 관(소변줄, 배액관, 위 영양관 등)을 만지기 전과 후
- 혈액, 체액, 분비물(가래, 침 등), 배설물(대변, 소변 등)을 다룬 후
- 서비스를 끝낸 후
- 화장실 다녀온 후
- 음식 섭취 전, 자신의 눈, 코, 입 등을 만지기 전



2) 어떻게 씻나요?



올바른 손씻기 방법

① 손에 물을 묻히고 충분한 양의 비누를 받는다.



②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면서 문지른다.



③ 손바닥으로 손등을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 행한다.



④ 손가락을 끼지 끼고 손바닥을 문지른다.



⑤ 손을 서로 맞잡고 손가락 뒷면을 손바닥에 문지른다.



⑥ 엄지를 감아쥐고 회전하듯이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 행한다.



⑦ 손등을 손바닥에 마찰하듯이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 행한다.



⑧ 물로 손을 씻은 후 타올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근다.



3) 수급자는 언제 손을 씻나요?

- 대, 소변 본 후
- 음식 섭취 전
- 눈이나 코, 입을 만지기 전
- 상처나 배액관을 만지기 전과 후
- 외출 다녀온 후

나. 처치 및 관리시 주의점

수급자는 치료를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기구와 배액관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1) 유치 도뇨관 관리

-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아랫배(방광위치) 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 소변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소변의 색깔이 변하거나 소변량이 줄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의료진(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알립니다.
- 소변줄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합니다.
- 소변줄과 소변주머니의 연결 부위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 소변줄 삽입부(회음부)는 하루 한번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씻어줍니다.
- 회음부위는 앞에서 뒤(항문방향)로 닦습니다.
- 소변줄이 막히거나 썬 경우, 오염이 심할 경우는 교체 (의료진(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알립니다.)

소변 비우기

①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한다.



② 소변을 비운다.(소변 배출구가 소변통에 닿지 않도록 하여 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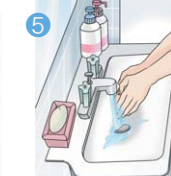
③ 배출구 끝을 알코올 솜 등으로 소독 후 끼워 놓는다.



④ 소변량을 확인한다. 소변을 비운 후 소변기는 물과 세제로 세척하여 건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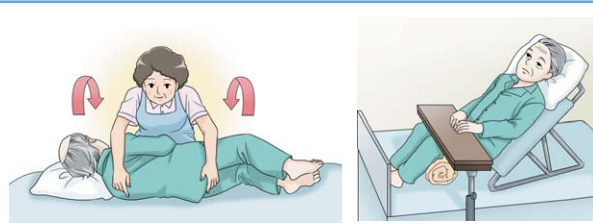


⑤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2) 수급자의 피부 관리

-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히 유지합니다.
- 찰과상이 있을 경우 감염되기 쉬우므로 찰과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이나 목욕 등의 활동 시 반지와 같은 보석류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손톱을 짧고 둥글게 깎습니다.
- 욕창 예방을 위하여 시트는 주름 없이 잘 펴고, **주기적(2시간 마다)**으로 자세를 변경합니다.



체위 교환을 통한 같은 부위의 압박을 최소로 줄임
2시간 마다 체위를 바꾸거나 가급적이면 앉히도록 한다.



청결, 건조유지 및 자극을 피함

- 목욕을 통한 청결유지 및 기저귀를 자주 갈아 눅눅함을 방지한다.
- 잠옷, 시트는 잘 마른 것으로 주름이 없도록 하며 햇볕에 잘 말린다.
- 침상에 먼지나 음식찌꺼기를 제거한다.

주사부위와 상처(욕창, 수술부위, 배액관 삽입부위) 관리

- 의료진(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지시에 따라 드레싱을 교환한다. 그러나 젖거나 더러워진 경우는 바로 교환한다.
- 드레싱을 하기 전 손씻기를 하고 장갑을 착용하며, 드레싱 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 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 소독은 피부 소독제를 사용한다.
 - ▶ 포비돈 요오드
 - ▶ 알코올은 상처가 있는 곳에는 자극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의료진(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알린다.
 - ▶ 피부가 빨갛게 되며, 부종이 있는 경우
 - ▶ 고름이 나오는 경우

3) 영양공급, 약물 및 음식관리

경구 영양 공급

- 음식 준비 전과 음식을 주기 전에는 손을 씻습니다.
- 대상자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대상자의 손을 씻깁니다.
- 가능하면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여 **기도로 음식이 넘어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완전히 삼킨 것을 확인 후**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사 후 30분 정도 앉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흡인성 폐렴 예방)
- 식사 후 대상자 및 보조자는 손을 씻도록 합니다.
- 매 식사 후 잇솔질을 합니다.



어금니의 바깥쪽
어금니의 바깥면은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아준다.



어금니의 안쪽
어금니의 안쪽면은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아준다.



앞니의 안쪽
어금니의 안쪽면은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아준다.



어금니의 씹는 면
음식물의 씹는 면은 앞뒤로 왕복운동을 하면서 각 부위 마다 10번씩 닦아줍니다.



앞니의 바깥쪽
앞니의 겉면은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아줍니다.



윗니, 아랫니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각부위마다 같은 동작으로 닦아준다.

약품관리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 캡슐에 들어 있는 약은 미리 까놓지 않고 복용 직전에 까서 복용합니다.
- 시럽의 경우 계량컵에 약을 덜어서 복용시키고, 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꺼낸 시럽은 다시 용기에 넣지 않습니다.
-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약은 복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장기간 사용하는 약은 개봉 일을 기록합니다.
- 개봉 후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색깔, 냄새 등이 변질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약품 전용용기에 보관합니다. (다른 약과의 오남용 방지)
- 안약, 귀약 등은 약 나오는 부분을 알코올로 잘 닦아 상온,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면봉에 묻혀 사용합니다.



음식물 관리

- 먹다가 남은 음식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뚜껑이 열려진채 보관, 실온에 장기간 두는 등)은 식중독이나 장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먹지 않도록 합니다.
- 음식물 보관 장소는 청소가 쉽고, 습기나 오염물과 떨어진 청결한 곳에 보관합니다. (벽, 바닥에서 15cm이상 간격)
- 식재료나 음식 보관용기에는 보관일자, 내용물, 유통기간 등을 표기합니다.

냉장고 관리

-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 냉장고에 넣습니다. (뜨거운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온도를 상승시켜 나머지 음식을 상하게 합니다)

- 음식이나 식재료는 비닐에 씌우거나 뚜껑을 덮어 보관합니다.
- 냉장고 내에서도 세균이 증식하므로 섭취 전 세척하거나 씻도록 합니다.
-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유통기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냉장고 온도는 1-4도를 유지합니다.
- 너무 많은 음식을 냉장, 냉동고에 보관하면 냉각 공기 순환에 방해가 되어 음식이 상하므로 공기가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 냉동 음식을 해동하는 동안 세균 증식이 급격히 발생하므로 냉장고에서 해동하고 다시 냉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식기, 도마, 칼 등 관리

- 식기는 세척하여 건조합니다. 매번 소독을 할 필요는 없으나 습도가 높은 기간이나 감염질환이 있는 경우는 소독합니다.
- 도마와 칼은 육류, 생선, 생야채, 익힌 야채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료에 있는 병원균의 오염 예방을 위하여 사용 후 바로 먹을 것과 사용 후 익힐 것으로 나눠 구분합니다. 색깔로 구분하면 편리합니다.
- 도마와 칼은 사용 후 세제와 물로 세척, 건조하며, 가능한 매번 소독합니다.
- 소독방법은 세척 및 소독 부분을 참조합니다.



다. 보호장구 사용

1) 장갑

- 수급자의 혈액, 체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합니다.
- 일회용 비닐장갑은 재사용 하지 않습니다.
- 장갑이 찢어진 경우 바로 교환합니다.
-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습니다.



2) 마스크

- 공기나 호흡기 분비물(가래, 콧물)로 전염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마스크를 벗을 때는 마스크 앞을 만지지 않고 끈을 풀어 끈을 잡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3) 가운

- 피, 고름, 대소변 등의 분비물로부터 의복의 오염을 막기 위해 착용합니다.
- 가운이 찢어지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교환합니다.
- 일회용 비닐 가운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감염성 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1)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관리

- 취급 전에는 반드시 장갑과 필요 시 가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배액을 비울 때는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용기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 배액은 오염물 폐기용 하수나 화장실에 버리도록 한다. 손을 씻거나 기구를 세척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세면기나 싱크대에는 절대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오염된 기구나 옷, 환경은 반드시 세척, 청소하고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합니다.

바닥에 쏟아졌을 때

- 종이나 천으로 흡수시킨다.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수급자의 혈액이 쏟아진 경우는 락스 10배 희석액을 위에 붓습니다.
- 새지 않도록 비닐에 흡수시킨 천이나 종이를 넣은 후 폐기물 처리합니다.
- 락스 100배 희석액으로 오염된 곳을 충분히 젖도록 한 후 잘 닦아냅니다.
- 만약, 천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주변 오염을 주의하며 비누로 세척 후 삶거나 세척제 용액으로 소독한다. 소독방법은 세척 및 소독을 참조합니다.

마. 세척, 소독, 세탁물, 폐기물 관리

1) 세척

- 사용한 기구나 물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과정으로,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합니다.
-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모든 표면을 솔 등으로 문질러 꼼꼼히 세척합니다.
- 혈액 등의 오염이 심할 경우 효소세정제를 이용하면 제거가 용이합니다.

기구나 물품에 따른 소독/멸균이란?

- 소독 : 병원미생물을 죽이거나, 또는 반드시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염력을 억제하는 조작을 말합니다.
- 멸균 : 물체의 표면 또는 그 내부에 분포하는 모든 세균을 완전히 죽이는 것, 즉 무균(無菌)의 상태로 만드는 조작을 말합니다.

2) 소독

- 소독 시간을 준수합니다.
소독시간이 짧으면 세균이 남아있고, 너무 길면 물품이나 기구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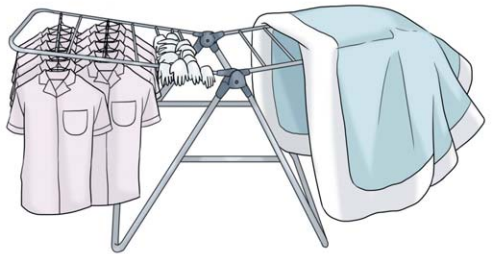
- 소독제가 기구나 물품에 충분히 접촉하도록 합니다.
물품을 소독제에 잠기도록 하고 공기는 빼내도록 합니다.
물품표면에 골고루 소독제가 묻도록 합니다.
- 한 수급자에게 사용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사용을 하는 기구나 물품은 반드시 소독하여야 합니다.

〈대상물에 따른 소독 방법〉

대상	소독방법
가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모든 물을 비워내고 솔이나 천을 이용하여 물이 닿았던 부위를 문질러 물때를 제거하고 행군다. • 락스 1:100용액을 물이 닿는 모든 표면을 담그거나 젖도록 뿌린다. • 30분 후 물로 행구고 다시 사용하며,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건조시켜 보관한다.
세면대, 욕조, 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이나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문질러 물때를 제거한다. • 락스 1:200희석 용액을 모든 표면이 젖도록 문힌다. • 30분 후 물로 행군다.
가구나 바닥, 문손잡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경우 사급암모늄 희석액(제조사 권장에 따름)을 표면이 충분히 젖도록 묻도록 하여 닦아낸다. 10~30분 후 깨끗한 걸레로 다시 닦아낸다. • 락스를 사용할 경우는 먼저 세제를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락스 1:200희석액으로 다시 닦아낸다.
식기, 수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식기를 사용하며, 감염성 질환이 없는 경우는 세제를 이용한 세척만으로 충분하다. • 공용 식기나 감염수급자가 사용 한 경우는 열탕소독을 하거나 락스 1:200희석액에 30분간 담근 후 깨끗한 물로 행구고 건조한다.
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를 이용하여 씻는다. • 열탕소독을 하거나 락스 1:200희석액에 10~30분간 담근 후 깨끗한 물에 행군 후 건조한다. • 담그기 어려우면 표면에 충분한 양을 뿌린 후 10~30분 후 행구고 건조한다.
위관영양주머니와 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액 주입 후 세제를 이용하여 씻어낸다. 솔질이 가능한 부위는 솔질을 하여 물때를 제거한다. • 1일 1회 락스 1:200 희석액을 채우고 10~30분 정도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행군다. • 물기가 잘 빠지도록 수직으로 걸어 건조시킨다.

3) 세탁물 관리

- 오염세탁물 : 법정감염병 수급자가 사용한 세탁물, 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및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은 별도의 방수용기에 분리하여 세탁합니다.
- 가정에서의 오염세탁물은 락스, 삶음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솜이불 등은 일광소독을 충분히 시행합니다.



4) 폐기물 관리

- 수급자에게 사용된 물품, 분비물이 묻은 물품은 방수비닐로 1차 포장하여 10배 희석한 락스를 뿌린 후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규정(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사용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III

감염질환 노출 시 조치

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하여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환

질환	노출 형태	조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형 간염 C형 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의 B형, C형 감염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감염에 우려가 없음 양성자 : 감염 가능성이 있음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감염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출된 부위를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씻습니다. 상처가 난 부분은 소독한다. 소속기관에 보고합니다. 진료를 보고, 필요 시 검사나 투약을 합니다.

• 진료 시 자신의 면역상태(B형간염 예방접종여부, 항체 보유여부)와 수급자의 검사 결과를 알고 있으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그 외 노출 되었을 때 조치가 필요한 질환

질환	노출 형태	조치방법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 수막염, 백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크 착용 없이 수급자를 1미터 내에서 돌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진료 후 필요시 화학적 예방조치 필요
수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공간 내에 있었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두를 앓았거나 예방접종을 한적이 없는 경우는 항체검사 및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 타수급자 서비스 금지

IV

수급자 발생시 의료기관 연락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자 질환이나증상에 따른감염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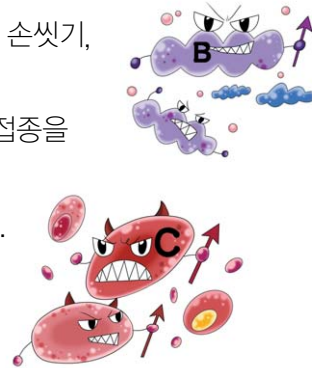
가. 질환별 주의점

1) 호흡기 감염질환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 준수 사항	청소 및 세탁
<p>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합니다. 침 혹은 재채기 시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합니다. 비누로 자주 손을 씻도록 합니다. (특히, 기침 후) 방이나 병실을 나올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p>서비스제공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를 만진 후, 수급자가 사용한 물품(옷, 이불, 휴지등)을 만진 후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등)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대, 테이블, 화장실 등의 표면을 소독제로 깨끗이 세척합니다. 수급자가 사용한 식기류, 세탁물 등을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으나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사용한 세탁물(수건, 이불 등)은 세탁 전에 끌어안아서는 안되며, 일반 세제로 세탁합니다. 세탁물을 만진 이후에는 바로 손을 씻습니다. 식기는 식기세척기나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합니다.

2) B형 간염, C형 간염

- 일상적인 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장구와 손씻기, 찔림사고에 주의합니다.
- B형 간염 수급자의 가족은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합니다.
- 의료기구 외 면도기, 칫솔 등은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수건이나 비누 식기, 수저 등으로 인하여 감염이 전파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세정이나 세탁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3) 옴

- 수급자와 접촉할 경우 반드시 장갑과 긴 소매 가운을 착용하며, 치료 후 24시간까지 접촉주의를 준수합니다. 가피성 옴 수급자는 치료 후 4일간 접촉주의 지침을 지킵니다.
- 장갑을 벗은 뒤 손씻기를 수행합니다.
- 침상 주위의 물품이나 기구 접촉 시에도 주의합니다.
- 세탁물은 끓는 물에 삶아서 남아있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치료제 도포 시 주의사항
 - ▶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바르고, 사용중이던 의복과 침구류 그대로 수면을 취한 뒤(치료제 도포 후 8시간이 지난 뒤) 다음 날 아침 샤워하고 사용했던 수급자복, 침구류, 수건, 양말 등은 모두 세탁합니다.
- 유 증상자 관찰
- 옴은 잠복기가 4~6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이나 의료진 (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중에 손, 손목, 팔꿈치, 배, 대퇴부, 전박에 가려움이 있는 발진 증상을 관찰하고, 유 증상자의 경우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나. 증상별 주의점

1) 기침 : 호흡기 위생과 기침 예절

-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사용한 휴지는 따로 폐기합니다.
- 기침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 기침을 하는 수급자의 방문은 닫아두고, 다른 수급자와 적어도 1.5m이상 거리를 둡니다.
-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와 열이 동반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2) 발진

- 발진은 접촉 및 공기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 전 수급자의 피부 병변을 만지지 않습니다.
- 발진 부위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 발진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합니다.
 - ▶ 수포나 열이 나는 경우는 공기 및 비말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 가려움이 동반하는 경우는 옴과 같이 접촉을 통한 전파질환일 수 있으므로 장갑을 착용하고 병변 부위를 접촉하도록 합니다.
- 발진이 있는 수급자는 특히, 임신부와 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3) 고열

- 열은 감염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 체온이 섭씨 38도 이상인 경우를 고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면역저하수급자의 경우 더 낮은 체온도 감염증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요합니다.



- 고열과 동반된 증상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 ▶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 경우: 공기 또는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 ▶ 고열과 발진이 동반된 경우: 공기나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 고열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며, 처방 없이 해열제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4) 설사

- 설사를 하는 경우는 다양한 장관계 병원균에 의한 감염일 수 있으므로 접촉주의 지침을 수행합니다.
- 설사수급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합니다.
- 설사하는 사람은 개인용 세면도구(수건 등)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수급자를 돌보는 사람이 설사를 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제한합니다.
- 수급자의 배설물을 접촉할 때에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을 벗은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충분한 마찰)
- 배설물이 묻은 환경 표면은 소독제로 세척합니다.
- 배설물 및 사용한 쓰레기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립니다.

감염병 질환 예방



종사자 면역상태확인 및 예방접종

가. B형 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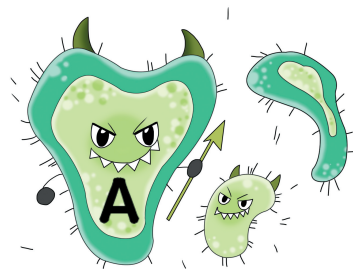
- B형 간염은 B형 간염 환자의 혈액이나 점막분비물에 접촉될 경우 전염될 수 있습니다.
-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경우는 증상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B형 간염 환자(보유자)일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요양업무 종사자가 과거 3회의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나. A형 간염

- A형 간염은 A형 간염 환자의 대변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요양업무 종사자는 A형 간염 환자 등 대상자 접촉 전·후에 손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요양업무 종사자는 2회의 A형간염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항체검사를 하여 음성인 경우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다. 인플루엔자(독감)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며, 인플루엔자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기침, 가래, 콧물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고, 겨울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수급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요양업무 종사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이전인 매년 10~12월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감염병 질환 예방

발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 1577-1000

발행일 : 2011년 11월